

□ 연수생 수기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현실이 되어있음에 감사함.

1. 해외여행 중 일본 기업문화를 간접체험 하다.

대학 졸업 후 군장교로서 6년 4개월간의 복무가 끝나가며 미래를 생각하는 시기가 있었다. 당시 유튜브가 막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해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틈만 나면 보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동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무엇을 해야 외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라는 명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복잡한 생각을 접어 두고 해외여행을 다니던 중 난생 처음 방문하게 된 일본, 그곳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게 된 한국의 후배들, 그들이 회사생활 및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일본회사 생활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모습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업문화를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었다.

학연, 지연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맥문화보다 실력, 능력을 인정해 주는 점이 내가 결정적으로 일본취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된 동기가 되었다.

바로 그때 전역 전에 해외취업정보를 접하게 된 월드잡플러스의 기억을 되살려 해외취업연수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2. 포기 상태에서 찾은 오아시스 - 일본취업 건축설계시공실무 과정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군대에서 건설공병대 장교로 일한 경험이 있어 관련 분야 연수를 받고 싶었는데 때 마침 해외취업건축연수과정이 개설된 것은 내게 행운의 발견이었다.

건축도면독해나 건축설계 프로그램을 거의 활용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히라가나 정도만 간신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7개월 과정으로 일본취업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아 비전공자들도 가능하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4.5개월이면 충분했다는 것이 함께 연수받은 동급들의 생각이다.

3. 취업면접준비의 기억

연수기간 중 취업을 위한 면접학습 당시가 가장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나 싶다. 자기 소개서를 쓰면서 그동안 공부했던 일본어 기본과정을 기반으로 더 좋은 어휘와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첨삭을 받아가며 올바른 표현, 더 나은 표현을 학습하면서 비즈니스 일본어실력도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면접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경력, 스펙보다는 “일본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취업지원자인가?”라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4. 취업 초기의 기억과 일본신입사원 멘토 역할의 현재

일본은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경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대해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많이 느껴졌다. 신입사원들은 제 아무리 4년제 좋은 대학을 나와도 현장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면서 키워 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생활 3년차인 내가 우수한 일본의 4년제 대학을 갓 졸업한 일본인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듯이

따라서 우리의 후배들은 "나는 경력이 없는데 아니면 학력이 부족한데 취업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보다 일본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현실적인 취업의 기술이라는 것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또한 현재의 일본 건설업계는 인력부족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더욱 취업의 문이 크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의 후회도 없다고 본다.

5. 일본 건설업계의 현재에서 느끼는 만족감

근무환경도 쾌적한 일본에서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다. 사생활의 간섭이 적어서 좋고 공식적인 회식자리는 손꼽을 정도여서 좋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휴대폰을 사용하기에 퇴근 후 연락을 받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좋다.

동료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한국에 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단점일 수 있으나 본인의 노력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6.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

일본 취업하며 첫 번째 근무회사로부터 일본 5대 건설사인 카지마건설로 파견되었다. 항상 맡은 바 일을 성실히 처리하였고 임원들과 특별한 친분도 없었다. 그렇게 사적인 대화도 없었던 현장에서 근무 중,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갈 때 현장 부소장의 추천으로 파견을 떴고 카지마건설 자회사로 정식 이직을 권유받게 되었다. 더 좋은 조건과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도 좋았지만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뻐다.

7. 끊임없는 노력만이 성공의 길

나의 직무는 건설시공에서 공사감독이다. 일본 내 도급순위 2위인 카지마건설 자회사에 근무하며 신 일본소방회관 건축현장에 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사, 동료, 작업자 등등 끊임없이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

1년차에는 동료들과의 대화, 회의내용 등등 모르는 단어나 문장 등을 수첩에 한글로 빠르게 적어나가며 몰래몰래 검색하고 일본어를 공부해왔다. 이제 곧 4년이 되어가지만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만이 성공의 길이라는 명제를 잊지 않으려고 한다.

8. 꿈을 가져야 이루어진다.

나는 오랜 군생활, 휴식기의 공백기간등을 거쳐 31살에 평소 일하고 싶었던 일본 취업의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더 원대한 꿈을 이루려고 한다. 누군가가 일본 혹은 해외취업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당장 도전하라고 하고 싶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분의 명제는 지금도 유효하다.

- 연수기관 : (주)현대CAD디자인직업전문학교
- 연수생 성명 : 박○근
- 연수과정명 : 3D건축설계 및 건축시공실무
- 연수기간 : 2019.05.17. ~ 2019.12.16. (140일 / 980시간)
- 수료 후 취업(근무현황)
 - 2020년 3월 브라이자 주식회사 입사 (본사 카나가와현)
 - 2020년 5월~10월 물류창고건축현장 (토다건설 파견)
 - 2022년 4월 주식회사 One Team (카지마건설 자회사) 이직
 - 2022년 4월~현재 신일본소방회관 해체 및 건축현장
(카지마건설 / 일본 내 도급순위 2위)
 - 현재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 거주 중